

과학대중화 노력에도 독자들의 반응은 냉담해

2001년 과학계의 성과와 과제

이원근 | 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올 한해 서점의 과학코너를 전전한 독자가 있다면, 그 변화의 폭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출판사들의 참신한 변신노력에도 독자들의 냉담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만큼 과학도서의 마이너리티 극복이 쉽지 않음을 다시금 실감해야 했다.

전집은 물론이고 종이 위에 세우는 각종 자연사·환경박물관 시리즈, 만화, 입체도서, 이야기, 심지어 과학동시까지 폭넓은 장르의 시도는 독자들의 기호에 각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칭찬할 만했다. 다만, 이런 새로운 시도가 호지부지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그렇더라도, 아직 전반적으로 번역서가 주류를 이뤘고 국내창작일 경우에도 어설플 흥내의 냄새가 짙어 결국 외국의 흐름에 대한 모방 측면이 다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제는 모방을 넘어 실질적인 발전을 이기를 기대한다.

문학성과 대중성 접촉하려는 시도 눈에 띄어

어느 해와 다름없이, 출판사들은 한결같이 전문작가의 부족에 울며였다. 특히 아동물의 경우 작가 부족 현상과 과학자들의 저술기피현상으로, 일부 국내창작을 시도하던 출판사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우리 정서에 맞는 아동과학도서의 창작 없이 번역서에 의존하면, 과학이 외국 것이라는 관념을 일찍부터 심어줄 수 있어 더욱 염려스럽다. 이런 저런 이유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번역서에 우선권을 두는 경향이 여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나름대로 해법을 찾는 출판사도 있었다. 판매부수가 제법 높았던 한 과학도서의 경우, 작가진이 특이하다. 과학저술가(또는 과학자)와 문학저술가(또는 방송작가)를 공동저자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환 과기부장관이 과학자의 자료를 토대로 과학동시를 시도한 점도 화제가 됐다. 이런 시도는 과학도서의 문학성과 대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무척 바람직한 시도다.

또 다른 시도라면, 홍보매체로서 과학도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한강 살리기 운동차원에서 기획제작한 도서가 성공적인 예다. '관' 적 이미지의 도서를 일반 서적화함으로써 좀더 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 외 첨단기업이 사업에 대한 간접

홍보를 위해서도 대중서를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목적이 어떠한 이런 시도는 과학도서 출판의 활성화에 바람직하게 작용하고 있다.

과학 독서운동 활성화로 과학출판 미래 밝아

전반적으로 부적 창작물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번역서가 주종을 이뤘는데, 특별히 전문번역가의 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번역의 오류가 많다. 더욱 아쉬운 점은 이런 오류에 대한 지적이나 자정운동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출간 후 몇 년 지난 영문서나 전집류의 경우 새로운 학설이나 발견에 따라 바뀐 내용을 수정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 적지 않다. 그래서 현재 한명의 전문가 자문(감수)이 일반적인 용어나 표현의 오류 발견에 치중하는 수준에서 탈피해, 폭넓은 과학지식의 변화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전반을 다루는 책은 자문위원의 선택이 중요하고 특히 그룹 자문의 형태를 취할 필요도 있다.

일부 공익차원의 도서선정 및 보급운동이 그나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독서문화 운동이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어 과학도서 출판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점을 실감한다. 'TV 책을 말하다'는 물론, 월례과학도서 모임인 과학독서아카데미의 활동 그리고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 등은 과학도서 출판 분위기를 진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과학문화재단의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은 해가 갈수록 그 효과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선정도서가 독후감대회 대상도서로 선정되면서 일부 도서의 경우 급격한 판매 신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측도 질 높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번역도서 분야를 추가해, 번역서에 대한 질적인 검증과 우수번역자의 양성에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운동이 더욱 체계화되고 지속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과학자의 대중서적 저술도 연구실적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인 숙제가 아닌가 싶다. ■

이원근 소장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이다. 저서 책으로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옮긴 책으로 <두 얼굴의 과학>(공역) 등이 있다.